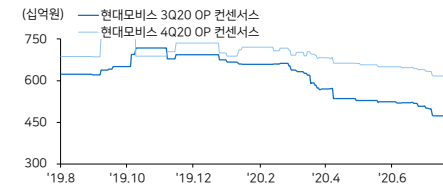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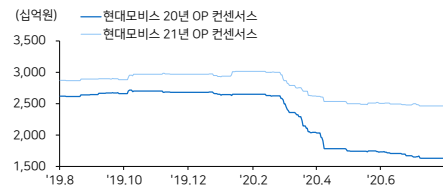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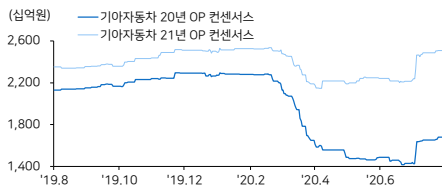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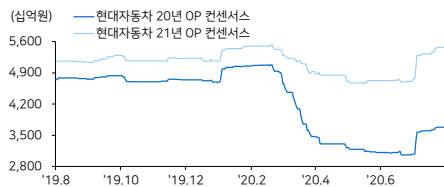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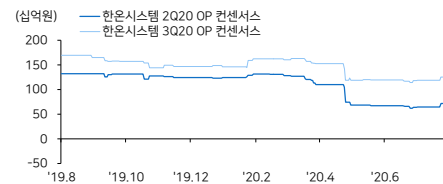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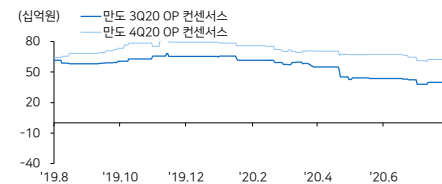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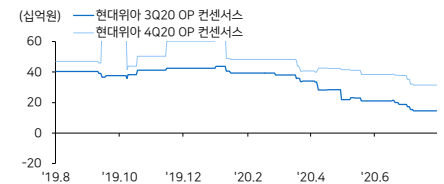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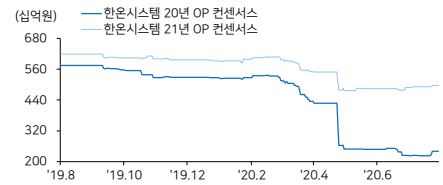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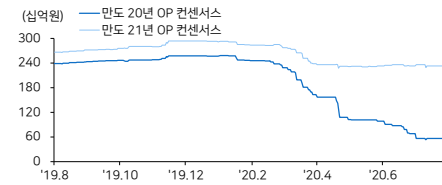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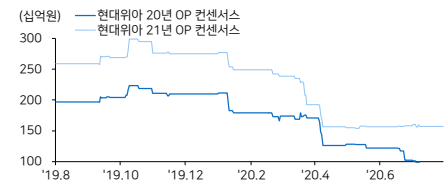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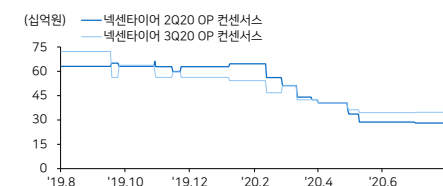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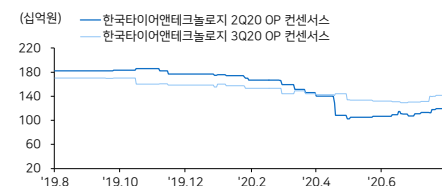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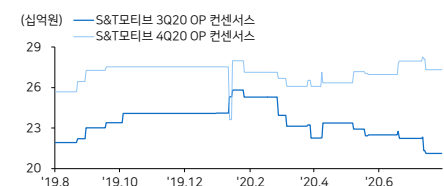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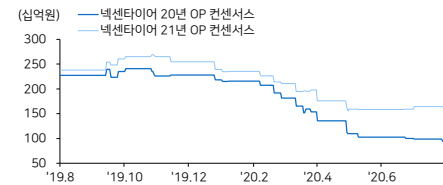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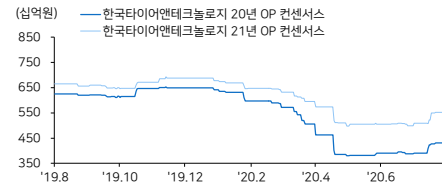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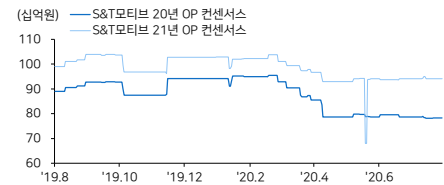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쏘넷 예약 1만대 돌파...기아차, 인도 '톱3' 정조준 (더그루)

기아자동차의 소형 SUV 쏘넷이 사전예약 열풍 만에 1만대를 돌파. 특히 기아차는 지난달 판매 실적도 1만대를 넘어 마르티스 조키와 현대자동차에 이어 인도 '톱3' 진입이 가시권. <https://bit.ly/2EUNf8i>

현대차, 8월 인도판매 '신기록'...기아차도 74% 수직상승 (더그루)

현대자동차가 지난 8월 인도 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기록을 갈아치움. 기아차 현지 판매량 역시 74% 수직상승. 현대차 인도법인인 8월 현지에서 지난해 8월(3만8205대)보다 19.9% 늘어난 4만5809대의 승용차를 판매. <https://bit.ly/3hRUxlg>

더 날렵해진 현대차 소형 SUV '더 뉴 코나'...10월 출시 (전자신문)

현대자동차의 대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가 보다 넓고, 날렵해진 디자인으로 돌아옴. 현대차는 2017년 6월 코나 출시 이후 3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코나'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 <https://bit.ly/31PLZfo>

유럽시장 공략' 삼성은 독자노선... LG·현대차, IFA 출격 (파이낸셜뉴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 2020'이 개막되는 가운데 삼성, LG,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들도 온라인 방식으로 출사표를 던짐. 코나나19로 올해 IFA가 규모를 크게 줄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신제품으로 격돌. <https://bit.ly/3IMyNZM>

기아차 중 고급화 전략 '시동'...'하반기 K5가 출발점' (헤럴드경제)

기아자동차가 중국시장에서 고급화 전략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나섬. 10만 위안(한화 약 1736만원) 이하 신차를 배제하고 향후 2년간 고급차 3종을 출시한다는 방침. <https://bit.ly/3gUuVJE>

EU, 현대차의 유럽 전기차 충전업체 투자 승인 (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는 현대차 그룹이 유럽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업체인 '아이오니아'의 지분 인수를 승인. EU 집행위는 현대차가 아이오니아에 대해 기존의 님라, BMW, 포르세, 포드와 공동지배권을 갖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힘. <https://bit.ly/34TZqNs>

친환경차 수출 증경, 자동차 수출 판도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친환경차 수출이 급성장.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늘어나면서 배터리를 달아 수출 호황에 접어들. <https://bit.ly/2ER8oAq>

테슬라가 싸아올린 니켈값... 전기차 배터리 수요 경증 (조선비즈)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이후 바닥을 쳤던 니켈 가격이 원자재 시장에서 급상승하고 있음. 전기차 배터리 원재료인 니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덕분. <https://bit.ly/2Q0PIZU>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